

2012. 4. 2. **Vol. 14**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농식품 소비안전 선진화 방안
한·터키 FTA 가서명 및 협상타결

거시경제 동향

2012년 3월 소비자동향지수

기획 정보

국내·외 수자원 현황과 시사점

농정 여론 동향

KREI 리포터 현장의 소리
· 농촌지역 대중교통 실태
· 농로 및 마을 도로 안전문제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지속가능성의 세계적 의미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

주요 농정 이슈_1

농식품 소비안전 선진화 방안

※ 본 자료는 3월 26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소비자의 안심 기반 구축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다」의 보도자료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추진 의의

○ 농식품안전 여건 및 환경변화에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필요

- 농식품 분야의 신기술 활용 및 선진국의 식품안전 정책강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식품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소득 수준 향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욕구가 증가하는데 따른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

○ 농식품 소비안전 선진화 방안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식품 안전 정책 및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소비자 정책으로 구성

- (농식품 안전 정책) 「농어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식품을 위한 **생산·가공·유통·판매단계의 사전예방·관리시스템 구축**
- (소비자 정책) 고품질·안전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과 **식품위해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환경 조성

※ 현재 소비자의 4대 권리: 선택권, 알권리, 교육권, 참여권

□ 농식품 소비안전 선진화 방안 주요 내용

1. 농식품 사전예방 관리체계 강화

○ GAP·HACCP 등 사전예방 안전관리 시스템 활성화

- 생산부터 소비까지 **GAP 제도 활성화**를 통해 '15년까지 전체 농산물 생산의 10% 수준까지 생산 확대
- 모든 단계에 HACCP을 적용한 축산물 공급 시스템 구축

○ 안전한 농식품 생산 기반 조성

- 사전예방의 관리 대상을 농식품 외 「생산환경·투입요소」까지 확대, 종합적인 안전 생산 기반 조성 확립

2. 생산유통 단계 안전관리망 구축

○ 안전성 검사체계 개선 및 위생감시 강화

- 농약·중금속 외 위해성이 높은 식중독균·항생제내성균 등 **생물학적 위해요소**에 대한 **중점 관리**
- 학교급식 및 인증 농식품(친환경, GAP, HACCP) 등 소비자 관심 영역 및 취약분야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 확대

○ 취약분야 안전관리 강화 및 위기대응 기반 구축

- 선진국 수준의 도축장 및 생고기 위생관리 시스템 개선
- 수확 후 처리시설(가공·보관시설) 및 단순처리(가공) 농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 지침 마련 및 교육 시스템 구축
- 농식품 안전사고 민·관 협력 긴급대응 가상훈련(CPX) 추진(신설, 연 1~2회)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 수립 및 보완

3. 수입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 수입 전(생산지·수출지) 안전관리 강화

- 축산물 수입허용 절차 진행 시, 상대국에 대한 위생평가 강화
- 수입허용 국가에 대한 적정 수준의 동물 및 축산물 안전성 유지를 위해 수입 허용 후 일정기간이 경과 시 수입위험 재평가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도('10.12~)가 초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상자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4. 소비자와의 참여 및 소통 강화 (소비자 정책)

○ 소비자와의 소통 채널 확대

- '농식품안전 6자 협력 체계(소비자·생산자·전문가(학회)·식품업계·

언론·정부) 구축으로 식품안전 소통 강화

- 정책 수립 및 집행·평가 전 과정에 소비자 참여를 활성화하여 만족도 도출 및 제도개선 병행

○ 농식품 인증·표시기준 합리화

-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한 인증제 개선
-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원산지표시제 내실화 추진

5. 과학적 위험평가 기능 강화

○ 농식품 위험평가 체계 확립 및 기능 강화

- 부처 내 분산되어 있는 위험평가 기능의 통합·조정하고, 위험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첨단 평가기술 등 연구 강화(연구 네트워크) 및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식품안전 연구 기반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 농·축·수산물의 생산단계 위해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및 연구성과 극대화를 위한 농식품 안전 R&D 지원체계의 선진화

6. 식품안전 추진체계 강화

○ 국내외 식품안전 파트너십 구축 및 중장기 농식품 안전 관련 법·제도·조직 기반 강화

- 협의체 구축 활성화를 통해 공동 교육·사업·연구과제 수행 등 유관 기관의 협조체계 강화
- 전문 분과별 쟁점대응연구 및 연구결과의 국제기준 반영 추진 등 국제협력 연구 강화(Codex 업무의 일원화 → 대응체계 구축)
- 식품 위생·안전·품질에 관한 법률 통합, '식품안전법' 제정 검토

○ 농식품 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수거·검사 등 현장 대응능력 및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확대

주요 농정 이슈_2

한터키 FTA 가서명 및 협상타결

※ 본 자료는 3월 26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한터키 FTA 가서명 및 협상타결」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농업부문 주요 협상 결과

○ 2012. 3. 26일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에 대해 가서명 하고, 공식 타결됨.

○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 제외, 관세 부분 감축, 장기 관세 철폐기간 설정 등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여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 최소화

-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분유, 사과, 배, 감귤, 명태 등 주요 민감 농수산물(795개 품목, 40.7%)의 양허를 제외

-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분적으로 감축(134개, 6.9%)하거나, 10년 장기(609개, 31.2%)로 관세를 철폐

※ 올리브유(우리 관세율 8%, 對터키 수입액 49만불), 월계수잎(8%, 26만불) 등 수입이 불가피하거나,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농산물 162개(농산물의 10.7%)와 수산물 32개(수산물의 7.2%)는 즉시 철폐

○ 수출 주요품목 및 잠재품목에 대해 즉시철폐 하여, 터키측 농수산물 시장개방을 적극 유도

- 우리의 대터키 주요 수출품인 인스턴트 커피(관세율 9%, 對터키 농수산물 수출액 대비 52%), 담배(관세율 16.6%, 對터키 농수산물 수출액 대비 8%) 등에 대해 즉시철폐

- 수출 잠재 품목인 라면(관세율 6.4%+40.27 EUR/100kg), 김치(관세율 39%) 등에 대해서도 즉시철폐

□ 기타 협상 결과

- 위생 및 검역(SPS)에 대해서는 WTO SPS협정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
- 원산지 기준의 경우, 신선농산물은 당사국에서 재배·수확된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제3국산 우회수입을 방지
 - 설탕과자, 코코아조제품 등 우리의 수출가능성이 있는 가공농산물은 제3국산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한·터키 FTA 농수산물 양허유형별 주요품목>

양허유형	한국 양허		터키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주요 품목	품목수
즉시 철폐	파스타, 토마토페이스트, 건포도, 토마토케첩, 조제식료품, 타임 및 월계수잎, 올리브유 및 그분획물, 밀(사료용)	194	인스턴트커피, 담배(완성품), 라면, 기타조제식료품, 소주, 김치, 간장, 된장, 맥주, 유아용조제식료품, 한천, 황다랑어	479
5년 철폐	초코렛(속을채운것), 올리브유(버진), 드롭프스, 레몬, 스파게티, 사탕수수, 인스턴트커피, 참다랑어	201	밀의글루텐, 인삼류, 선인장, 장미, 겨자씨, 개 및 고양이사료, 청어	62
7년 철폐	잼, 버터조제품, 무화과(신선/건조), 맥주, 식염	21	통립, 글라디올러스, 밀크알부민, 고래류	34
10년	일담배(오리엔트종), 밀가루, 코코아페이스트, 레몬주스, 옥수수유, 겨자유, 간장, 위스키, 와인, 해바라기씨조유, 포도주스, 멸치통조림, 파래, 김	609	일담배(황색종), 양배추, 오이, 감자, 콩, 고등어, 연어, 넙치, 참다랑어	801
관세감축	보조사료, 플레이크 해삼, 멸치, 송어, 게, 굴, 홍합, 아귀, 가오리, 갑오징어	134	요구르트, 추잉껌, 마가린, 설탕과자, 송어	175
양허제외	쌀, 쇠고기, 돼지고기, 감귤, 포도, 오징어, 고추, 꿀, 넙치, 닭고기, 마늘 등	795	혼합주스, 파인애플, 버찌, 살구, 닭고기, 유장, 치즈, 버	1,060

거시경제 동향

2012년 3월 소비자동향지수

※ 본 자료는 3월 27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2년 3월 소비자동향지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소비자심리지수

-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3월중 101로 전월대비 1p 상승**

<구성지수의 기여도>

구 분	11.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1월	2월	3월
소비자심리지수 ¹⁾	102	99	99	100	103	99	98	100	101
(전기 대비 지수차) ²⁾	0.0	△2.8	0.0	0.8	2.7	△3.4	△1.1	2.5	0.2
구 성	현재생활형편	△0.2	0.0	△0.5	0.5	0.2	△0.3	△0.3	0.5
지수	생활형편전망	△0.2	△0.2	0.0	0.2	0.6	△0.7	△0.2	0.7
기여도	가계수입전망	0.3	△0.5	0.3	0.0	0.5	△0.8	0.0	0.3
(p)	소비지출전망	0.0	△0.7	0.4	0.0	0.2	△0.5	△0.2	0.5
	현재경기판단	△0.1	△0.5	△0.3	0.1	0.6	△0.5	△0.2	0.2
	향후경기전망	0.2	△0.9	0.1	0.0	0.6	△0.6	△0.2	0.3

주 1) 소비자심리지수는 개별지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후 단순 평균하여 산출

2) 전기와 지수 차이를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시

□ 가계의 소비심리

- 현재생활형편CSI¹⁾는 84로 전월대비 2p 하락, 생활형편전망CSI는 94로 전월과 동일
- 가계수입전망CSI는 97로 전월대비 1p 상승, 소비지출전망CSI는 108로 전월과 동일

<생활형편, 가계수입 및 소비지출전망CSI 추이>

구 분	11.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1월	2월(A)	3월(B)	(B-A)
현재생활형편CSI	86	86	83	86	87	85	83	86	84	(△2)
생활형편전망CSI	92	91	91	92	95	91	90	94	94	(-)
가계수입전망CSI	97	95	96	96	98	95	95	96	97	(+1)
소비지출전망CSI	109	106	108	108	109	107	106	108	108	(-)

1) 소비자태도지수(CSI: Consumer Sentiment Index): 장래의 소비지출 계획이나 경기전망에 대한 소비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지수로 환산해 나타낸 지표

□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현재경기판단CSI와 향후경기전망CSI는 각각 전월대비 2p씩 상승
- 취업기회전망CSI는 90으로 전월대비 2p 상승
- 물가수준전망CSI는 전월대비 1p 하락, 금리수준전망CSI는 전월대비 1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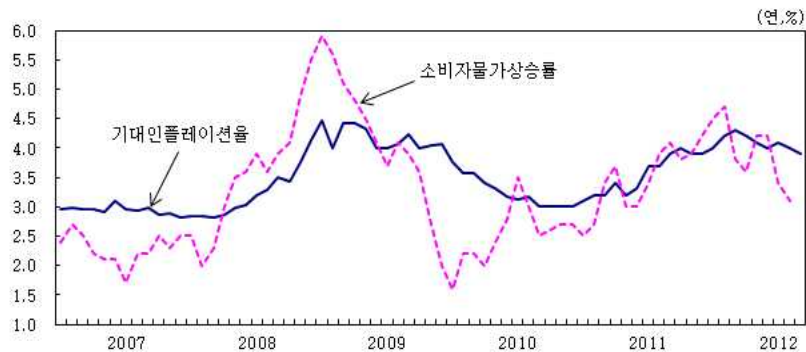
<경기, 취업기회, 물가 및 금리수준전망CSI 추이>

구 분	11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1월	2월(A)	3월(B)	(B - A)
현재경기판단CSI	76	68	64	66	75	68	65	68	70	(+ 2)
향후경기전망CSI	88	77	78	78	86	78	76	80	82	(+ 2)
취업기회전망CSI	92	88	96	90	91	82	83	88	90	(+ 2)
물가수준전망CSI	149	151	144	145	140	146	144	142	141	(△ 1)
금리수준전망CSI	133	128	126	123	119	118	117	115	116	(+ 1)

□ 기대인플레이션

-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연평균 3.9%로 전월대비 0.1%p 하락
- 구간별로는 향후 물가가 3.5%를 초과하여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소비자 비중이 70.7%로 지난달에 비해 1.5%p 감소

<기대인플레이션율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기획 정보

국내·외 수자원 현황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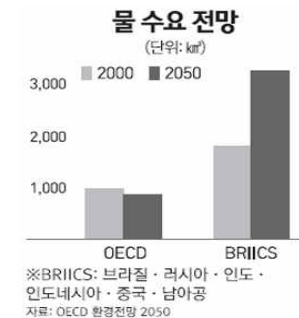
□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 문제 등장

-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물부족, 홍수, 수질오염 등 물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문제의식 확산
 - 날로 심각해지는 물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1992년 제47차 UN총회에서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제정·선포, '97부터 3년마다 세계물포럼 주관
- UN, 2050년에는 지구촌 인구의 절반이 물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
- 2050년까지 기온상승 2℃ 억제에 성공해도 세계인구 20억 명이 물부족으로 고통당하고, 생물종의 20~30%가 멸종위기에 처할 전망
- UN의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군(국민 1인당 확보된 연간 담수량 기준 1,700㎥/미만)으로 분류,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 건설교통부)에서도 '06년부터 물 부족 예측

□ 국내의 수자원 현황

1) 지구촌 물 현황

- 세계 물 수요는 2000년 3,565㎥ → 2050년 5,467㎥로 53.4%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특히 BRIICS(브라질·러시아·인도·인도네시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개발도상국에서 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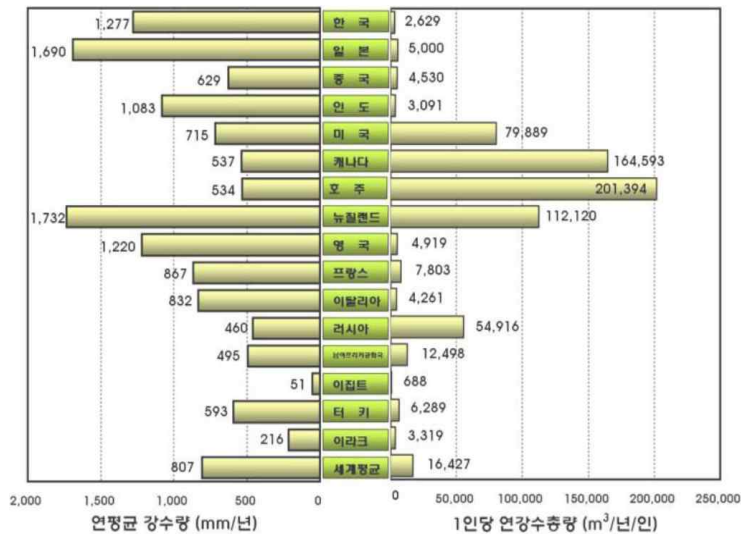
- 지구 물의 양은 13억 8천 6백만㎞³ 추정, 이 중 바닷물이 97%인 13억 5천 1백만㎞³이고 나머지 3%인 3천 5백만㎞³가 민물로 존재
-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막화 현상을 제외하고는 **세계의 1/3가량은 물부족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2) 우리나라 물 현황

-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277mm로 세계 평균(807mm)의 1.6배이나, 1인당 연강수총량은 2,629톤으로 세계 평균(16,427톤)의 약 1/6에 해당
- 1인당 이용가능한 수자원량*은 1,533톤에 불과(세계평균 8,372톤)
- ※ 강수총량에서 증발산 등의 손실을 제외한 양을 총인구로 나눈 값

<세계 각국의 강수량>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영 국	중 국	캐나다	세계평균
연평균강수량(mm)	1,277	1,690	715	1,220	629	537	807
1인당강수량(m ³ /년)	2,629	5,000	79,889	4,919	4,530	164,593	16,427



자료: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11년 세계 물의 날 기념 생명을 위한 물」 2011.3

- 지역별·연도별로 강수량의 편차가 심하고 홍수기(6~9월)에 강수량이 편중(강수량의 74%)되어 **물이용 및 치수 측면 모두 취약**

※ 연강수량 최저 754mm(1939년) → 최대 1,756mm(2003년)

- 우리나라 수자원총량은 1,297억 톤이며, 이 중 증발산 등 손실량을 제외한 이용가능한 수자원량은 수자원총량의 58%인 753억 톤임.
- 생활·공업·농업용수 이용량은 255억 톤으로 1965년(51억 톤)에 비해 5배 증가(인구는 2,870→4,846만 명으로 1.7배 증가)
-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년 수자원 이용량 333억 톤 중 농업용수는 159억 톤으로 47% 차지

□ 우리나라의 물 관련 최근 추세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일 'OECD 환경전망 2050'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가용 수자원 대비 물 수요량이 40%를 넘어 OECD 회원국(34개국) 중 '심각한 물 스트레스' 국가(1위)로 분류

※ 벨기에·스페인 30% '물 스트레스 보통수준' 국가 / 일본·미국·폴란드·멕시코·터키·독일 등 10~20% '물 스트레스 적은 국가' / 스위스·헝가리·덴마크·칠레·호주·슬로베니아 등 10% 미만 '물 스트레스가 없는' 국가

-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가상수'* 수입국

- 현재 먹는 식량의 4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속에는 엄청난 양의 가상수가 포함.

※ 가상수: 식량, 공산품 등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물

→ 예 쌀 1kg을 생산하는데 1,900~5,000ℓ, 콩 1kg은 1,100~2,000ℓ, 쇠고기 1kg은 1만 5,000~7만ℓ의 물이 필요

-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이용가능한 수자원량은 1453m³로 전 세계 127위
- 영국 생태환경 및 수확문화센터(CEH), WPI*에서 147개국 중 우리나라가 43위
- ※ 국가 복지 수준, 물이용 가용성을 나타낸 통합수치

- 우리나라 상하수도 요금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그룹

□ 미래의 물 전망

- 미국 국가정보국(DNI), 3.22 발간한 보고서에서 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담수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 전망
 - 이로 인해 정치적 불안, 경제성장 둔화, 식료품 시장 교란 등의 부작용 발생, 지역별로는 남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등의 물 문제 심각
 - 물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21세기 블루골드(푸른 금)'로 불릴 정도의 희귀자원으로 떠오르면서 물의 가치 상승
- 기획재정부, 2011.8.18일 국제 미래연구 싱크탱크인 '밀레니엄 프로젝트'는 기후변화와 물부족, 에너지부족 등 15개 세계 도전과제에 대한 평가를 담은 2011년 유엔 미래보고서 발표
 - 석유생산량의 정점을 의미하는 피크오일(peak oil)개념과 유사한 피크 워터(peak water) 개념 등장
 - "2025년에는 기후변화, 인구증가 1인당 물 수요 증가 등으로 세계 인구의 절반은 연간 1인당 물 사용량이 1000㎥에 못 미치는 물 부족 상황에서 생활할 것"으로 예상
- 세계경제포럼 수자원 이니셔티브 보고서(2009.1), '수자원 부도(water bankruptcy)'가능성 경고, "이제는 1970년대 석유파동(oil shock)이 아니라 물파동(water shock)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

□ 정책적 시사점

- 기후변화로 물 관리의 어려움 가중될수록 생태계 등 자연환경뿐 아니라 식량 생산, 위생, 보건, 에너지, 관광, 산업 등 물과 연관된 사회의 다른 부문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물 관리를 '안보'의 대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물 스트레스가 심한 국가로서 물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원임을 인식
- 전 세계가 물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대체할 자원이 없다는 점에서 성장 잠재력이 크며, 물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우리나라도 물 산업에 진출하는 기회로 활용

- 효율적인 물 사용을 유도하고, 상하수도 시설개선 재원 확보를 위해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인 상·하수도 요금 정책의 재고 필요

※ 참고문헌

- 국토해양부_www.mltm.go.kr
- 환경부_www.me.go.kr
- 국립환경과학원_www.nier.go.kr
- 국토해양부_보도자료(2012.3.21) "제20회 세계 물의 날, 녹색국가 의지 천명"
- 국토해양부_보도자료(2011.12.28)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2020)"
- 환경부 「OECD 환경전망 2050」 물 분야 주요내용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11년 세계 물의 날 기념 생명을 위한 물」 2011.3
- 환경부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 2010.10.12
- 농촌진흥청 RDA Interrobang(33호) 「기후변화와 우리농업(II) - 도전과 과제」 2011.9.7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물관리 취약성과 물안보 전략II」 2010
- 원예산업신문 보도자료(2012.3.26),
- 서울경제 보도자료(2012.3.23)
- 아시아투데이 보도자료(2012.3.23)
- 한국경제 보도자료(2012.3.22)
- 아시아경제 보도자료(2012.3.21)
- 매일경제 보도자료(2012.3.16)
- 세계일보 보도자료(2012.3.7)
- 파이낸셜뉴스 보도자료(2011.8.18)
- 아주경제 보도자료(2011.12.28)

□ 농촌지역 대중교통 실태

“농촌지역 마을버스 소멸위기와 운영횟수 늘렸으면”

- 농촌지역의 버스는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대형버스를 중소형버스로 대체하는 게 효율적**임. 또한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막차는 6~7시인데 농촌은 막차 이후에 별다른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방과 후 학습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9시까지**는 운행되어야 함.<남도성, 충남 당진>
- 농촌의 시내버스는 나홀로 버스 운행이 많음. 농번기때에는 더더욱 그런 현상이 잦음. 따라서 **농촌지역 실정에 맞게 유연한 농어촌버스 운행 정책이 필요**함.<변해동, 강원 홍천>
- 농촌의 대중교통 운행 시간을 경제논리가 아닌 주민 편의 중심으로 개선해 **하루 2~3번** 운행을 **2~3시간 간격**으로 조정해 주기 바람. 대중교통 요금보다는 운영시간이 더욱 중요함.<김병철, 경남 김해>
- 농촌지역 대중교통은 대부분 노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편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는 타고 내릴 때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힘들어 하고 있음. 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해 주기 바람.<김종근, 전남 순천>
- 군에서 농촌지역 운행 버스에 보조금을 주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용 승객이 점차 줄면서 운행 횟수도 줄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음. **농촌지역 대중교통 정책의 개선 노력이 필요**함.<박종규, 전남 구례>
- 농촌지역의 대중교통은 열악함. **오지마을 대중교통이 중단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주어 소형버斯拉도 운행**해 주길 바람.<방호정, 경남 하동>
- 농촌지역의 교통편이 학생 등하교 시간에 편중되어 있고 **낮에는 버스 운행 간격이 길어 주민들의 불편**이 큼.<정은실, 제주 제주시>
- 요즘 농촌에도 개인 자가용이 많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개

노약자거나 학생들 뿐임. 그로인해 하루에 몇 번씩 운행하던 버스는 하루에 2회 정도로 아침저녁 학생 통학버스가 되어버렸음. 현실적으로 **승객이 줄었으면 차량도 소형으로 바꾸어 운행**하되 **횟수를 늘려 운행**하는게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됨.<장석우, 충남 청평>

- 버스 승객이 줄어 버스회사 경영이 안된다는 이유로 몇칠씩 버스가 운행이 안된 적도 있었음. 그 뒤로 군청에 민원이 들어가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주어 정상운행이 되고 있으나 **운행 시간을 어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김갑순, 경북 영양>
- 이용자는 많지 않은데 오지마을에도 대형버스들이 운행되고 있음. **대형버스와 중소형 미니버스 운행**을 비교·산출하여 **현실적이고 경제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 것임.<주양호, 전남 장흥>
-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지 않아 **자가용 이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노령층은 오토바이 등의 이용으로 사고 확률이 늘어나고** 있음.<김인남, 경북 상주>
- 담양군과 곡성군의 경계에 사는 사람은 각 지자체 **군내버스가 자기군만** 운행하고 **군 경계를 넘으면 갈아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각 군에서 광주 등 대도시까지 한 번에 갈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나종주, 전남 화순>

□ 농로 및 마을 도로 안전문제

“농로 및 마을도로 폭 너무 좁고 곳곳에 위험 요소 많아”

- 농촌의 작은 공간이나 **짜투리 땅을 포장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했으면 함. 또한, 길이 좁아 위험하니 길옆 수로에 **뚜껑을 덮어 보행 안전도 확보**하고 **차끼리 피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함.<김민호, 경기 이천>
- 도로변 가드레일을 시멘트로 만들어 놓아 사람이나 작은 손수레조차 다니기가 불편하여 그냥 **주행하는 차와 함께 도로에 다녀야** 하는 상황임.<오인하, 경남 창원>
- 농촌 마을 도로는 옛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폭이 너무 좁아 2.5톤 트럭은 다니기가 어려우며 소방문제도 있어 매우 불안함. **마을 도로 확장**이 필요함.<홍용표, 경북 울진>

- 농로 및 마을도로는 그 지역 사정에 따라 폭 2~3미터로 좁게 이루어져 있음. 또한 **농로 자체가 개인 땅이 대부분으로 시멘트 포장되지 않은 곳이 많아** 불편이 큼.<나종주, 전남 화순>
- 농로와 마을도로가 좁아 차량이나 경운기가 서로 만나게 되면 큰 곤욕을 겪고 있음. 이에 곳곳에 **차량이 비켜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안전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됨.<김종근, 전남 순천>
- 농로는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이라 아주 협소하고 **승용차량이 서로 교행 하기도 아주 위험해 재정비 하는 것이 필요함**.<김병철, 경남 김해>
- 농로는 대부분 배수로와 나란히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음. 농로와 배수를 식별할 수 있는 **안전표지 설치**가 필요함.<박건환, 강원 홍천>
- 옛길을 보전하는 것도 필요함.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을 많이 확충**해야 할 것임.<임충빈, 경기 안성>
- **체험객을 유치하는 친환경 농장도 농로가 좋지 못해 사고가 빈번함**. 또한 마을도로는 표지판이나 안전시설이 전무해 반사경 같은 도로 표지 시설이 꼭 필요함.<방호정, 경남 하동>
- 현재 농촌지역은 대형농기계와 자동차를 이용해 눈에 물꼬를 보러다니는 시대로 현실에 맞게 농로도 바뀌어야 함. **자동차와 농기계가 교차할 수 있는 농로가 필수적**으로 생각됨.<김용덕, 경기 남양주>
- 농로를 포장하려면 먼저 설계를 하고 보상을 하여 강제포장해야 할 것임. 또한 **도로를 파손하면 처벌하고 원상복구 시키는 규제가 필요함**.<변해동, 강원 홍천>
- 마을 안길에서 끊기는 농로는 표지판을 입구에 설치해야 하고 **마을안길 통행에 있어서도 통행 가능한 차량 안내판이 꼭 필요함**.<주양호, 전남 장흥>
- 도로법상 농기계가 도로를 통행할 수 없어 영농철 농기계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음. **농로와 도로의 접합부 증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됨.<박종규, 전남 구례>
- 마을 도로 문제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트랙터임. 트랙터는 음주단속을 안한다하여 음주운전을 하거나 로터리에 흙을 잔뜩 묻히고도 큰길로 나오는 경우가 있음. 이에 **기술센터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해주었으면 함**.<이윤희, 강원 철원>

농정 여론 동향_2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본 자료는 3월 26일~30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돼지 가격 안정대책, 생산자 의생만 강요”

- 정부, **할당관세기간 연장, 상·하한가 가격(5,000~3,500원) 관리** 방안 등 돼지 가격 안정대책 발표했지만 **양돈 농가들, 한·미 FTA 발효로 삼겹살 대량수입 우려**(7만 톤 추가 수입)와 함께 **상·하한가 기준 놓고 ‘하한가(생산비-자가노력비=경영비 산출)’의 적정 여부 비현실적**이라는 반론. 한·미 FTA 발효로 **냉동삼겹살 관세율이 25%→16%로 낮아져 수입 물량은 점점 증가되어 과잉공급** 전망. 정부의 하한가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0 축산물생산비조사’에 근거한 수치인데, 정부는 사료비와 가축비 인상분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생산비를 4000원 정도로 추산한 반면 **감가상각비와 방역비 등이 포함되면 생산비는 더 늘어난다**는 것이 양돈 관계자의 전언

자료: 한국농어민신문(2012.3.26).

□ 삼겹살 파동 눈 앞…양돈농가 4월 줄아 중단 선언

- 대한양돈협회, 3.28일 긴급 도협의회 개최 및 4.2일부터 무기한 돼지 출하 중단 결의. 28일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철야천막 농성을 시작으로 4월 6일 양돈농가·농민연대·농수축산연합회·축단협 집회** 예고. 앞서 3.26일 기획재정부 방문해 삼겹살 수입중단 요구했지만 정부는 20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통해 **삼겹살 할당관세 연장 및 7만톤 추가수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혀 논란. 한편, 농수축산연합회(상임대표 김준봉)도 3.2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무관세 수입방침을 즉각 철회, 농가의 경영비 수준, 구제역 이후 농장재건 등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장기적 수급 안정, 양돈농가의 소득을 뒷받침 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

자료: 농축유통신문(2012.3.28).

□ 안 · 중 수교 20년...대중국 농산물 무역동향 살펴보니

- 한 · 중 수교 20년 양국, 전체 교역규모는 1992년 63억 8,000만 달러→ 2010년 1,884억 달러로 30배 증가, 농산물 교역은 2003년과 2005년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최대 농산물 수입대상국, 수출은 2009년 이후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 제2의 농산물 수출시장으로 부상. 농산물 무역 적자폭이 갈수록 커지고, 주요품목의 대중국 수입의존도 심화

■ 대중국 수입액 상위 농산물 현황 단위: 백만달러,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품목	1992년	1997년	2000년	2005년	2010년	3개년 평균 (2008~2010년)
쌀	0	10.1	37	33.5	136.2	130.6
대두	0	0.7	9.7	28.5	35.7	126.7
전분박	1	1.6	5.4	25.7	117.3	118.4
김치	0	0	0.2	51.3	102	93.7
고추	8.3	8.6	10.4	49.7	109.2	91.2
기타채소	10.8	16.7	21.1	30.7	70	59.3
마늘	0	11.6	9.1	21.2	101.3	48.4
참깨	24.8	10.9	26	31.3	48.6	48.2
기타과실	0.9	16.9	15.9	41.6	44.9	47.6
당면	16.2	21.3	19.6	27.1	53.8	47.3

자료: 농민신문(2012.3.26).

□ 中 시장공략... '수출 20억 달러 목표'

- 농식품부·aT, 3.23~26일까지 중국 청두(成都)에서 개최된 '2012 중국 당주상품교역회' 참가. 중국 가공식품박람회 중 최대 규모.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중국 당주상품교역회에 한국관 운영. 올해는 국순당, 대상, CJ, 하이트진로 등 10개 업체가 주류, 차, 음료, 김 등 대중국 수출전략품목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벌여 수출 판로 개척. 중국은 우리 농수산물식품의 수출 2위 시장으로 지난해 조미김, 유자차, 인삼류를 비롯해 주류, 스낵류 등 가공식품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한 13억 8000만 달러의 수출실적 기록. 올해 대중국 수출을 전년 대비 44.8% 증가한 20억 달러로 확대할 계획

자료: 농수축산신문(2012.3.26).

□ 수입농식품 유통관리 '엄망'

- 감사원, 3.23일 '수입농식품 유통관리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검역당국 관리 소홀로 수입농식품의 부실한 유통관리 실태 심각, 부적합품 시중에 유통, 수입쇠고기 이력시스템 정보 부정확, 관련기관 정보공유 안해 단속 허점 노출

□ 우리쌀 브랜드 유럽서 보호 못받아

- 유럽에서 원산지가 미국인 '가짜 한국쌀'이 광범위하게 유통. '이천쌀·철원쌀·여주쌀' 도용해 가짜 한국쌀 팔아 한·EU FTA서 보호약속 지리적표시 '유명무실'. 한·EU 양측은 상호 인정할 지리적표시 품목을 협정문 부속서에 일일이 기재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 협정 수준 강도 높여 보호키로 함. 한국 64개, EU 162개 협정문 부속서(10-가·나)에 등재된 품목 가운데 우리 쌀 브랜드는 <이천쌀> <철원쌀> <여주쌀> 세 개. 해당 지역 농가나 생산자단체가 아니면 한국은 물론 유럽에서도 브랜드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

자료: 농민신문(2012.3.30).

□ 식량·곡물자급 위한 농지확보 시급

- 지난해 식량자급률 및 곡물자급률 목표치가 상향 조정됐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여전히 미흡. 농지가 필요량에 비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28일 농경연 주최로 열린 '농업·농촌의 중장기 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2020년 곡물자급률 목표치 3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75만2,000ha의 농지가 필요하지만 향후 도시 개발에 따른 농지 전용 등으로 2022년 158만ha까지 감소 전망(김정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에 대해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편입 시 우대조치, 들녘별 농지 재개발사업 등을 통해 농지 확보 시급 주장.

자료: 농민신문(2012.3.30).

연구 지원 정보

지속가능성의 세계적 의미와 시사점

※ 본 자료는 3월 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지속가능성의 세계적 의미와 시사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검토배경

- 생물학적 생활체계와 관련하여 사용되어온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세계적으로 **경제·경영·사회체제 등에 확대 적용**
-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각국의 경제정책은 타국에 지대한 영향**을 주므로 세제, 국가부채, 금융, 환율 등 **정부정책과 국가간 협력 문제가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고려될 필요**
-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사회정의가 중시되는 상황에서 이를 포괄하는 '지속가능성'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균형된 정책적 시각 유지**

□ 지속가능성의 의미

- (지속가능한 발전) 미래세대를 배려하는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추구**
 -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상호 간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

- **(환경적 지속가능성)** 생태용량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생태적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개발과 생물다양성의 보호, 환경용량의 제약, 천연자원의 보전 등을 중시
- **(사회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정의, 기회균등, 사회적 불이익으로 부터의 보호, 미래세대의 발전가능성, 계층 간 형평성 확보
- **(경제적 지속가능성)** 성장의 지속성은 충분하고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경제구조 확립이 전제

- UN 경제이사회 산하에 '지속가능개발위원회'가 설치된 이래 각국은 국가지속가능개발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환경친화적 정책 등을 추진

- **(지속가능한 경영)** 기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환경·사회에 대한 책임이 조화되는 경영체제 구축 및 실행**이 더욱 중요해 지는 경향
 - 사회에 대해 책임 있는 기업, 환경·인권·소비자·노동자를 생각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업이라는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가 부상
- **(지속가능한 소비)** 자원의 유한성이란 제약 하에 특정한 소비 행위의 장기간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개념
 - **환경수용력을 감안한 녹색소비를 위한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과 녹색상품 생산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
 - 미국발 금융위기를 거친 후 지속가능한 소비를 환경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소득불균형 문제에 초점을 맞춰 확대 사용**

□ 최근 지속가능성의 핵심 이슈

- **부채의 적정성(Debt Sustainability)**
 - (원조의 기준) '05년 4월 IMF와 WB는 **채무감당능력에 기반한 무상원조 배분제도**를 도입
 - (재정 건정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조치, 경기둔화에 따른 세수감소, 금융기관 지원 등으로 인해 주요 선진국 재정이 급속히 악화

- 채무적정성 평가체계(DSF; Debt Sustainability Framework)는 제도실적과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인 CPIA(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를 사용하여 채무부담 한계수준(threshold)을 설정한 후, 채무부담지표와 비교하여 수원국의 채무압박 정도에 따라 무상원조 수준을 결정하는 체계

○ 지속가능한 투자(Sustainable Investment) *

- 투자부문의 역할이 시장의 안정과 세계경제 질서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시장, 기업경영, 투자전략이 보다 장기화될 필요

-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성과가 좋은 기업**은 여타 조건이 동일하다고 전제할 때 **더 나은 장기적 재무성과를 실현**하는 것으로 분석

* 친환경적이고 친사회적인 지배구조가 투명한 기업을 찾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전략

○ **지속가능한 복지(Sustainable Welfare)**

- 서민생활의 안정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 확충 노력을 지속하면서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를 근간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복지 패러다임**을 정립
- 복지지출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경직적, 비가역적 성격이 농후** 하므로 제도의 성숙으로 복지 지출이 본격화하기 전에 **재정여력을 미리 확보**할 필요

□ **평가 및 시사점**

-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의 제반 경제활동에 대한 뉴노멀(New-Normal)의 새로운 가치는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평가·정립**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08년 금융위기, 유럽재정위기 등 글로벌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내적으로도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 가능
-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